교육감 직선제 또 폐지 주장에 교육청 발끈

헌재 지난해 합헌 결정에도 與 법안 재발의

교육청 "민주주의 역행" 반발…답변서만 세번째

새누리당이 지난 국회에서 폐기됐던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다시 발의, 일선 시·도 교육청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교육감 직선제 합헌' 결정을 내린데다,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점을 감안하면 충분한 논의 절차나 의견 수렴 없는 법안 발의로 논쟁만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광주시교육청은 20일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교육 현안을 둘러싼 이념·대립을 해소하는 것보다 교육감이 정치적으로 예속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보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데 따른 답변 형식으로,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대한 답변만 이번이 세번째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014년 김 의원이 발의한 같은 취지의 법률안과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비슷한 법률안에 대해서도 같은 답변을 했었다.

윤 의원은 당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 지사가 시·도 의회 동의를 얻어 교육감을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전남도교육청도 교육부에 "교육감 직선제는 지난 20년간 수많은 문제점을 보완해오며 발전해온 제도"라며 "직선제 폐지는 시대를 역행하는 행위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가 크다"는 내용의 답변을 보냈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 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여야 이견으로 법안 처리가 미뤄져 19대 국회에서는 자동 폐기됐다. 헌재도 교육감 직선제를 규정한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공식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 총선 때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공약했던 새누리당은 참패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같은 점을 들어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20대 국회 개원 이후 충분한 논의 절차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도 않은 채 무책임하게 이뤄지는 포퓰리즘성 법안 발의라는 비판도 나온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고법 '찾아가는 재판'

25일 완도군법정…바다영역 분쟁

법원이 황금어장을 놓고 벌어진 어촌계 간 갈등 현장을 직접 찾아 재판을 진행한다.

광주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오는 25일 완도군 노화읍 넙도(내리) 인근 해상을 방문해 갈등 현장을 둘러보고 인근 선착장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어 완도군법정에서 제1회 변론기일을 갖는다.

이는 노화읍 내리 어촌계와 미라리 어촌계 사이 각 어촌계의 업무구역(어촌계가 사용할 수 있는 바다영역)의 범위와 관련, 분쟁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소송의 주요 쟁점은 양 어촌계 사이 체결된 1985년 협정과 1990년 협정이 정한 업무구역은 어느 지점을 경계로 한 것인지와 미라리 어촌계의 양식시설이 내리 어촌계의 업무구역을 침범하고 있는지 여부다.

평화롭던 두 섬마을 사이 갈등이 시작된 것은 2000년대 중반으로 노화도가 전국적인 전복 주산지로 떠오르면서부터다. 더 많은 전복과 다시마를 생산하려면 더 넓은 바다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광주고법은 당사자들이 체결한 협정 내용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장상황의 파악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안태윤 광주고법 공보판사는 "실질적으로 민원성 다수당사자 소송인 만큼 현장을 방문해 화해가능성을 타진하는 등 법원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실관계와 주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현장을 직접 찾게 됐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광주다움이란…" 20일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열린 (사)광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주관 '제2회 광주정신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광주다움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야생진드기 치사율 30%…광주·전남 올 3명 사망

확진환자 전년보다 15%↑…산간·구릉지역 7~9월 집중 발생

야생진드기에 물려 감염되고 치명률이 30%에 달하는 중증열성혈소판증후군(SFTS) 환자가 올들어 광주 1명, 전남 3명이 발생했다. 이 중 3명이 숨졌다.

질병관리본부는 18일 현재 SFTS 확진 환자 수가 3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7명보다 14.8% 늘었다고 20일 밝혔다. SFTS로 인한 사망자는 올해만도 5명이나 발생했다. 광주에서 1명, 전남에서 3명의 환자가 나왔다.

2013년 이후 국내에 환자 201명이 발생했으며, 이 중 59명이 사망했다. 치명률은 29.4%로 매우 높다. 최근 4년간 SFTS 확진 환자는 광주 1명, 전남 18명(2013년 5명, 2014년 1명, 2015년 9명, 2016년 3명)이었다. 올해 발생한 광주 환자는 숨졌고, 전남에서도 확진 환자 18명 중 7명이 사망했다.

SFTS는 작은소피참진드기(야생진드기) 등에 물려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다. 주로 산간·구릉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진드기가 활동하는 4~11월에 대부분 발생하며, 특히 진드기 활동이 왕성해지는 7~9월에 환자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환자 대부분은 50대 이상이며, 연령대가 높아지면 환자 수·치명률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올해 들어 SFTS 환자 수가 지난해보다 증가하자 질병관리본부는 산·구릉 등 야외에서 활동할 때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SFTS 진료 지침을 제정해 전국 의료기관에 배포했다. 지침에는 환자를 조기에 진단해 치명률을 줄이고, 혈액으로 인한 인체 간 감염이 확인된 만큼, 환자 진료시 의료진도 보호장구를 착용하라고 권고했다.

질병관리본부는 SFTS를 옮기는 참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이 진드기가 활동하는 4~11월에는 야외활동할 때 예방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야외에서는 돗자리를 사용하고 풀밭 위에서는 옷을 벗어두거나 눕지 않아야 한다. 산책로나 등산로 등 지정된 경로 외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풀밭에서 용변을 보지 않아야 한다. 야외 활동 후에는 옷을 털고 반드시 세탁해야 한다. 머리카락, 귀 주변, 팔 아래 등 몸에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확인하고 목욕, 샤워하는 것도 진드기 예방에 도움이 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뜸 05:33 해짐 19:44 달뜸 20:32 달짐 06:40

폭염특보

가끔 구름 많겠으며 무덥겠다.

◇지역별 날씨 (℃)

광 주	구름많음	23/32	보 성	구름많음	21/28
목 포	구름많음	23/30	순 천	구름많음	22/31
여 수	구름많음	23/27	영 광	구름많음	23/32
나 주	구름많음	22/33	진 도	구름많음	23/29
완 도	구름많음	23/28	전 주	구름많음	23/32
구 례	구름많음	21/32	군 산	구름많음	24/32
강 진	구름많음	23/29	남 원	구름많음	22/31
해 남	구름많음	23/30	흑산도	구름많음	22/25
장 성	구름많음	22/32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남동~남	0.5~2.0	남동~남	0.5~2.0
	먼바다	남동~남	1.0~2.5	남동~남	1.0~2.5
남해서부	앞바다	남동~남	0.5~1.0	동~남동	0.5~1.0
	먼바다(동)	남동~남	0.5~1.0	동~남동	0.5~1.0
	먼바다(서)	남동~남	1.0~2.0	남동~남	1.0~2.0

◇물때

	밀물	썰물
목포	03:12	08:24
	15:10	20:26
여수	09:50	03:53
	22:26	15:48

◇생활지수

식중독	경고
자외선	높음
미세먼지	좋음

◇주간 날씨

22(금)	23(토)	24(일)	25(월)	26(화)	27(수)	28(목)
23/32	24/30	23/31	24/31	24/30	23/29	28/30

여수 가막만 산소 부족 물덩어리 확산

수온 상승 영향…양식장 피해 우려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는 20일 여수시 가막만에서 발생한 산소부족 물덩어리(빈산소수괴)가 확장하고 있어 수산물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산소부족 물덩어리는 바닷물 속의 산소 농도가 ℓ당 3㎎이하로 낮아진 상태를 뜻한다. 보통 여름철 표층의 수온은 높고 저층의 수온이 낮아 물섞임이 좋지 않은 반폐쇄성 내만에서 발생한다.

지난 5월30일 가막만 선소해역의 저층 1m층에서 용존산소가 ℓ당 2.04~3.67㎎인 약한 빈산소수괴 현상이 처음 나타났다. 이달 들어 수온이 상승하면서 산소부족 물덩어리가 여수 가막만 내 신월·웅천지역으로까지 번지고 빈산소층도 3m로 확장됐다.

가막만의 빈산소수괴는 매년 여름철에 발생하며, 지난해는 6월 중순에 처음 나타나 10월에 소멸했다.

수산과학원은 가막만 선소해역의 저층 빈산소수괴는 수온 상승에 따라 저층 4~5m까지 확대하고 10월 말까지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소부족 물덩어리가 양식장을 덮치면 어패류가 대량으로 폐사하는 등 피해가 발생한다.

김상수 수산과학원 연구사는 "패류양식장에서는 부자를 더 붙이거나 바닷속으로 늘어뜨린 양식 줄의 길이를 짧게 하고, 어류양식장에서는 사육밀도를 낮추고 먹이 공급량을 줄여달라"고 당부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고흥군의장 선거서 돈 전달한 60대 입건

고흥경찰은 20일 고흥군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후보에게 돈을 받아 의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뇌물방조)로 A씨(6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중순께 고흥군의회 7대 후반기 의장 선거에 출마했던 B후보에게 1000만원을 받아 다른 의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승용차 안에서 돈을 건넸고 다시 돌려줬다"고 진술했다.

조사 과정에서 한 의원은 B후보가 2년 전 전반기 의장 선거에서도 다른 의원들에게 수백만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고흥=주각중기자 gjju@kwangju.co.kr